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무의 법구

이산의 안개비와 강강의 물결이여
가 보지 못했을 한 천만 가지 한이었네
하나 그 곳에 가 보자 별다른 것은 없고
이산의 안개비와 강강의 물결이었네
-소동파-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성동대불

대표전화 02 737-8881 구독문의 02-737-008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9월 6일 수요일(주간) 제285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불교를 배우기 위해 교양·불교대학의 문을 두드리기에 앞서, 가상공간을 클릭하는 '사이버 불교대학' 시대가 오고 있다. 교계 첫 인터넷불교대학(buddhistweb.com)이 개설된 데 이어, 한국불교선학연구원·한국불교연구원·동산불교대학·삼보법회 등도 강의 콘텐츠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를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불교대학 개설에 나서고 있다.

"사이버대학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1천만 명을 웃도는 네티즌이 있는 국내 역시 이 같은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건이 있는 만큼, 교계의 발빠른 대응은 그저 다행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안도감은 사이버 불교대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라는 데 있다. 현실공간이 갖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불교를 배울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수천만 명의 네티즌에 대한 포교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불교대학 잇단개설 '환영'

특히 네티즌 중에는 교계에서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포교 대상'이라는 청소년·고학력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적잖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계에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사이버 불교대학'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가꾸는 또 다른 방편이며, 그래서 불자 즉 사이버 불교대학의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이것을 양성하기 위해 각별한 애정을 쏟아야 한다.

우선 운영자는 교육 환경을 높이 데 주력해야 한다. 교계보다 먼저 사이버 대학을 개설한 일반 단체들은 '접속 자체가 힘들고 접속 후에도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이용자들의 '짜증'에 시달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또한 동영상과 시뮬레이션 등 첨단 매체의 장점을 극대화한 강의 콘텐츠 개발에도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수업에 빠지지 않고 과제물 꼬박꼬박 챙기는 이용자의 정성도 필요하다. '사이버 대학'은 기존 교양·불교대학의 과정을 원격강의 하는 것뿐이어서, 수업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은 똑같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마감한 연세대 사이버교육센터(yonsei.hanaro.com)의 '동양사상과 선' 강좌의 성공 사례는, 가상공간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운영자와 이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비지정 문화재 보호 받는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난·은닉 처벌 규정 등 강화

문화재 절도범들의 집중 표적이 됐던 비지정문화재도 앞으로는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비지정문화재 보호책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비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또 은닉기간 동안은 공소시효를 중단시켜 은닉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공소시효를 연장시켰다. 아울러 도난문화재의 불법취득과 운반뿐 아니라 양도·보유 및 보관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은 또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가지정' 제도를 확대해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도 가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유문화재의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건물 등도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4월 비지정문화재보호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에서 요청한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비지정문화재 보호와 문화재 불법유통을 근절할 획기적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지 267호 1면 참조〉

조계종 총무원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이 비지정문화재 도난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예 없는 점,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공소시효가 짧아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지난 4월 국무총리실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요청했었다.

조계종 문화부 이상규 과장은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데도 지정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치됐던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앞으로 각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보문화재에 대해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종단차원의 보호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지난해 펴낸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 의하면 도난문화재의 94.8%가 비지정문화재이며, 지금까지 비지정문화재 도난사범은 일반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공소시효(5년)만 경과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가운데 '은닉기간 중 공소시효 중지' 조항은 법률적 논란이 예상된다. 형법상 공소시효는 범죄사실이 종료된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조항의 경우 '범죄사실 종료시점'을 언제로 보는냐에 따라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9월 15일까지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8월30일 열린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창립식에서 참가자들이 '생명파괴, 민족파괴 지리산댐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창립

190개 단체 동참… '100만명 서명' 전개

190개 종교·환경·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이 8월30일 한국일보 대강당에서 각 단체 회원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개최했다. 불교계가 주도해 온 환경운동이 범국민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행동은 이날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계와 환경·시민단체, 문화·산악계, 지역 대표자 등으로 11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28개 단체를 중심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 범국민적인 지리산댐 백지화및 지리산 살리기, 낙동강유역권 댐건설 반대, 개발위주의 수자원정책 변화촉구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국민행동은 이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 지리산의 문화·생태·역사·생활에 대한 총체적 조사작업, 홈페이지 제작, 지리산 문화제(9~10월경), 종교지도자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 촉구 공동기자회견(11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수자원정책' 범국민토론회(11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상임공동대표에 수경스님(지리산살리기댐백지화추진범불교연대 상임대표)과 김지하 시인, 이세중 환경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경실련 공동대표, 집행위원장에 유재현 세민재단 이사장을 각각 선출했다.〈상임대표 인터뷰 3면〉

참석자들은 "수질관리와 수요관리를 중심에 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을 시급히 제시할 것" 등 6개항의 대정부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세계평화-인류복지 종교지도자 앞장선다"

UN 종교지도자 회의
내년 한국개최 가능성

1천여 명의 세계 각국 종교·영성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밀레니엄 종교·영성 세계평화회의'가 28일 개막,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해 종교·영성지도자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세계평화선언에 서명하고 31일 폐막됐다.

종교지도자들은 세계평화선언을 통해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폭력을 비판하며 △빈부격차 해소와 자연환경 보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선언문 3면〉

세계평화회의는 모리스 스트롱 유엔평화대학총장을 의장으로 하는 44명의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열어 유엔사무총장에게 조언할 계획이다. 또 세계평화회의는 향후 10년간 각국의 분쟁지역에서 매년 평화 이벤트를 개최키로 하고, 내년 회의를 한국전쟁 51주년을 맞아 내년 6월 25일을 전후로 한반도에서 개최할 뜻을 비쳤다. 그러나 북한측의 수용 여부와 한국 내 종교·영성 단체간 합의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월주 前 조계종 총무원장, 강원용 크리스찬 아카데미 명예이사장, 고은 시인 등 16명이 참석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세계 종교계 교류 활발…
한국불교 무관심 - 무대응

종교간 대화와 협력으로 인간의 고통을 풀고자 하는 세계 종교계의 흐름에 한국불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밀레니엄 종교·영성지도자 세계평화회의'는 이러한 의문을 갖게 한다.

세계평화회의는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지만, 지구평의회(코스타리카), 세계종교연합(인도), 세계종교회의(영국), 국제초종교센터(영국), 세계종교평의회(미국) 등 국내 불교계에 생소한 11개 국제종교단체들이 이번 조직을 도맡았다.

국제적인 종교 모임을 상세히 소개한 〈세계종교공동체 사료집(A Source Book for Earth's Community of Religions)〉에 따르면, 세계종교지도자들은 이 단체들의 국제적인 조직망을 활동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국내 불교계에 잘 알려진 것은 고작 '세계종교평화회의(WCRP)' 국제종교자유연맹(IARF)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은 세계 종교계 속에서 한국불교계의 모습은 '우물 속의 개구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80년대 후반부터 한국 종교계의 국제교류 창구로 자리하고 있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교계는 국제적인 종교 모임에 매년 참석하고 있지만 '세계종교평화회의'와 아시아 지역의 종교 모임인 '아시아종교평화회의(ACRP)' 등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두 개의 모임에 참석하는 인물들은 전문성조차 고려하지 않고 종단 대표자급으로만 일관돼, 모임을 통해 보고 듣는 세계 종교계의 포교 방법이나 사회 활동 등을 국내에 환원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몇 몇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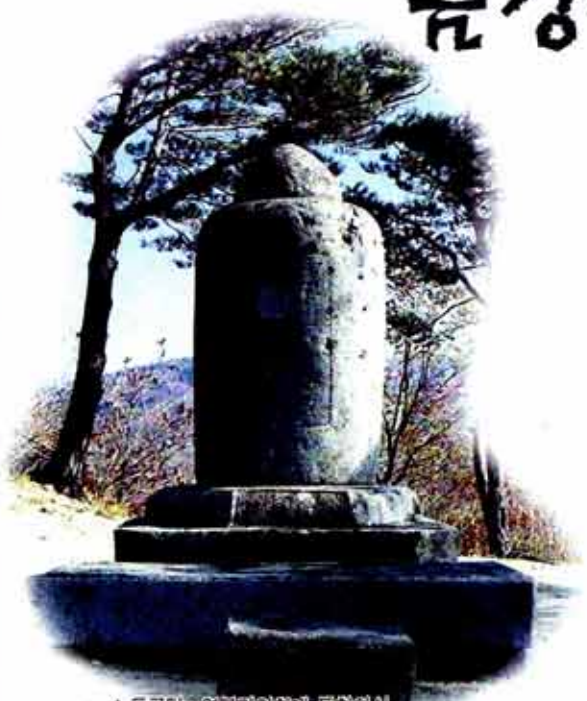
☞2면으로 계속

日刊 인터넷 현대불교
Buddhanews.com

나라가 어려울때(國難) 불교전통(佛敎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2000년도

금강산 건봉사 가을 성지대회 공고



△ 등공탑=염불만일회에 동참하신 서른 한 분 스님의 육신 등공부도탑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도 가을 아미타 염불성지대회를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일 시 : 2000년 10월 1일 ~ 2일 (1박 2일)
◇장 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 건봉사
◇내 용 : 염불정진 및 등공대 참배, 아미타 무용
◇신청대상 : 개인, 단체, 사찰, 가족단위
◇참 가 비 : 25,000원
◇신청방법 : 전화신청 후 은행계좌에 입금
◇교 통 편 : 개인별 건봉사 도착

서울·경기지역 출발 안내
○출발장소 : 서울 조계사 앞(안국동 로터리)
○출발시간 : 2000년 10월 1일 오전 6시
○교 통 편 : 관광버스(단, 동참자는 참가비·교통비 포함 50,000원을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 모집
▶ 회원자격 : 염불수행을 원하는 모든 분
▶ 회원대상 : 사찰, 단체, 개인별로 가입
▶ 회원회비 : 가입비 2만원(매년회비 1만원)
▶ 가입방법 : 전화 및 우편(사무국 : 02)732-1215~7)

회원이 되시면
▶ 아미타불의 수행방법을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염불만일회 소식을 가정에서 통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염불일일기도 수첩 보내드림)
▶ 전국 대도시별로 회원 관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 평생동안 염불만일회 회원이 됩니다.
▶ 법보신문에 매주 고유번호와 성명이 게재됩니다.

회원가입 은행 입금계좌 (예금주 : 염불만일회)
국민은행:023-21-0667-309 조흥은행:390-04-249351
농 협:053-02-128104 우 체 국:010041-0384727
외 환:173-18-10454-9

全國念佛萬日會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02)732-1215~7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